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음 3월 21일) 제22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한지 우수성 세계에 널리 알린다

전주한지문화축제, 내달 4~6일

전통문화전당 일원서 개최
패션쇼 · 산업관 등 진행
3 · 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지로 만든 무궁화 꽃 전시

제23회 전주한지문화축제 기자회견이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주한지문화축제 김선태 조직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뤄내기 위한 한지 축제가 열린다. 〈관련기사 4면〉

김양원 전주 부시장과 김선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개최되는 '2019전주한지문화축제'의 주요 일정과 세부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 한지로 꽃피다!'를 슬로건으로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의 우수한 한지공예인을 발굴하기 위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개막행사 · 한지패션쇼 △전국한지공예대전 △체험행사와 이벤트 △한지산업관 △초대작가전 · 길림성 조선족 세시풍속화전 등 5개 분야 41가지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5월 4일 오후 6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총 3100개의 한지로 만든 무궁화 꽃을 전주우림초등학교 등 전주지역 16개 초등학교 학생 3100명이 만들어 축제장에 전시한다.

또한, 전주한지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지혜의 꽃과 세계 최초로 온실을 만들어 사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한지 온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선보인다.

아울러, 한지비행기 날리기 대회 특별행사와 특별 전시로 중국 길림성조선족 자치구에서 준비한 조선민족의 세시풍속을 수묵채색으로 담은 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중국조선족 세시풍속화 초청전'이 전당 2층 한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제25회 전국한지공예대전'의 수상작 전시와 초대작가 작품전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주한지문화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한지산업관도 운영된다. 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 다목적관에서 펼쳐지는 한지산업관에서는 한지명인이 생산한 고품질의 전주한지를 축제기간 동안 특별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전주한지 국제패션쇼 △디자이너 초청 갈라쇼 △15회 한지패션디자인 경진대회 △한지 코스튬플레이 패션쇼 △전통한지공예기법(지승 · 지호 · 색지 · 지화 · 후지) 체험 △한지 커피필터 핸드드립 △한지 향초 · 한지 꽃 화분 · 한지 카네이션 만들기 △특별공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 관람 ·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될 예정이다.

김선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한지의 명성을 알리고, 전주의 도시 브랜드로서의 한지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전주한지의 보존성과 탁월함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바야흐로 전주한지가 전주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됐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지문화축제 사무국(063-271-2503)으로 문의하거나 축제 홈페이지(www.jhanji.or.kr)을 참고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도내 기존기업, 타 시도 이전 기업과 동일 지원

전북도 기업 ·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도, 이달 말 입법예고 내달 중 도의회 상정 의결

전북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도외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개정 검토중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투자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도 일부 추가 지원(기초보강 : 지반 보강 시설시),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개정되는 주요 조례안은 도내 기존기업,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의 동일하게 지원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기존기업의 증설투자 보다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도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내 기존기업도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을 동일한 조건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 한도)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별 세분화로 지원금액도 차등 상향 조정에 나섰다.

개정되는 주요 시행규칙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는 기존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을 지원하였고, 개별입지는 기업당 50억원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도 개별입지와 동일하게 기업당 5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4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중 도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혁신도시에 제2중학교 신설 확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전주봉암중 설립계획은 재검토

전주혁신도시에 제2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주에서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전북혁신도시 내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설립계획이 조건부 승인(유 · 초 · 중 시설 연계 설립방안 마련 및 시설복합화 계획 보고 후 추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시티 내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이번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으로 전주혁신도시 및 만성도시개발구역 내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에코시티 내 전주봉암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분양세대수가 중학교 신설수요에 미달하여 학교 설립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통보를 받은 전주봉암중학교는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불가능하고, 통학불편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적기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며, "2019년 9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제3금융중심지 '3자합동위' 구성을

16면 - 미리보는 '남원 춘향제'

전북도, 글로벌 강소기업 6개사 최종 선정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는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존스미디어㈜, 성일하이텍㈜, ㈜지엠에프, ㈜케비젠, ㈜삼원중공업, ㈜세창스틸 등 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6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423억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약 20.6%로 나타났으며, 산업분야별로는 기계 · 자동차 2개사, 식품 2개사, 금속 · 이차전지 1개사, 소재 · 화학 1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4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김진성 기자